

처리난 겪던 폐해녀복 관광상품으로 재탄생

매년 1000여벌 폐기... 서귀포시, 고민 끝 업사이클링 어촌계서 수거 제작업체에 공급... 10여가지 상품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삶이 오롯이 담긴 폐해녀복이 관광상품으로 재탄생해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서귀포시와 소품숍 제스토리에 따르면 처리난을 겪던 폐해녀복을 업사이클링, 10여가지 상품으로 제작해 4개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제주해녀문화를 담은 관광상품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폐해녀복의 업사이클링은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해녀에게 지원되는 해녀복은 서귀포시에서 2017년 1474벌, 2018년 967벌, 올해 1397벌에 이른다. 하지만 내오프렌 소재의 해녀복은 평균 사용기간이 1~2년으로, 한

해 폐기되는 해녀복만 1000여벌로 추정되는데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안돼 골칫거리였다.

이런 폐해녀복은 서귀포시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운영하는 미래전략팀 참여 공무원들이 '폐해녀복의 업사이클링'을 연구과제로 삼아 이를 활용한 소품 제작을 구상했고, 제스토리에 의뢰해 시제품이 만들어졌다. 몇달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소품숍에서 동전지갑, 액자, 돌고래 풍경, 조랑말 인형, 돼지 드림캐처, 가방 등 10여가지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해녀복을 어떻게 처리할까에서 출발한 고민이 제주해녀문화의 삶이 담긴 제품으로 탄생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촌계의 협조를 얻어 폐해녀복을 수



처리난을 겪던 낡은 해녀복으로 만든 다양한 상품들이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거해 제품 제작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폐해녀복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마잖아 폐해녀복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품을 판매하는 제스토리 유용기 대표는 "폐해녀복은 상품화하기 어려운 재질이라 시제품 제작 초기엔

시행착오도 겪었다"며 "하지만 서귀포시 젊은 공무원들의 열정이 대단했고, 단순한 제품을 넘어 해녀문화의 삶과 정신이 담긴 옷으로 업사이클링의 좋은 사례가 되겠다 싶어 소품제작 작가들과 어렵게 선보인 것이 시장의 관심을 끌게 됐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서귀포시, 행안부장관표창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에서 단체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사업비(특별교부세)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이번 안전문화대상은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서귀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 시민사회에 안전문화를 효율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운영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 실시 ▷민관합동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어린이 안전표어·포스터 공모전 등 어린이 안전정책 활성화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 ▷재난안전마을 육성 ▷민간시설물 안전인정제 등을 추진해 왔다. 문미숙기자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활동 본격 돌입

제주도의회 특위, 20일 활동계획서 채택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올해말까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도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수립 ▷제2공항 주

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목표로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될 수 있다.

특위는 김장영 교육의원이 특위 구성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하면서 당초 7명에서 6명(더불어민주당 박원철·조훈배·홍명환·고현수·강성희·강민숙 의원)으로 우선 운영된다.

특위의 일일별 활동계획을 보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 방문을 비롯해 도민의견 수렴 계획 확정을 위한 도민대토론회 개최 후 도민의견 수렴계획을 확정(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선정)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에 따라 조사·용역 실시 등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4월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다.

활동계획서 채택과정에서 특위 위원들은 특별위원회가 제2공항 건설 찬반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도민의견 청취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견과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오은지기자

제주 '드론 규제샌드박스' 성과보고회

28일 서부농업기술센터서 진행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태양광 드론 등 총 3대의 드론 비행과 함께 AI기반 객체 탐지, 실시간 영상 전송, 드론랜딩스테이션, 엠 호출 등을 시연

한다. 아울러 시연 후에는 각 사업자별로 면담도 진행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5월 '2019년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규제 해소 및 드론기술 실증을 통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전기차충전특구 제주... 활성화 방안은

21일 하워드존슨호텔서 워크숍

정부가 제주를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2시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전기차 활성화위원회·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기차 보급활성화 정책 및 산업육성방안에 대해 특강과 패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전기차 충전 업체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가 '전기차 시장전망과

산업육성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어 '전기렌터카 보급 확대'를 주제로 전기차활성화위원회 위원, 렌터카 업체, 전문가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 밖에도 제주에 적합한 초소형 전기차 보급에 대한 토론도 실시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충전 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충전 서비스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에 나서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성산읍, 동계전지훈련 지역 유치 '스타트'

여자축구 등 600여명 유치기로

서귀포시 성산읍(읍장 강승오)은 2019~2020시즌 동계전지훈련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일 성산읍에 따르면 2019~2020 시즌 여자축구, 카누, 조정, 양궁 등 4개 종목에 600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9억원을 목표로 전지훈련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성산읍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기구보장, 제2보조 경기장 추가 확보) 및 참가팀 리그 운영, 관광지 무료관광, 무료 셔틀버스 운영, 목욕시설 할인 혜택 등 행·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성산읍 지역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대한축구협회 주관 'AFC/KFC C급 지도자 감습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서귀포시 동흥동 일주동로가 수종 갱신과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정원형 가로숲길로 재탄생한다.

동흥동 일주동로 도시녹지경관 개선 사업

생육 불량 담팔수 교체·제거 화단 정비 정원형 가로숲길로

서귀포시는 일주동로 동흥사거리에서 비석거리 구간에 병해충 피해로 고사되거나 생육이 불량한 담팔수를 교체·제거하고 가로화단을 정비하는 도시녹지경관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업에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올해 말까지 동흥사거리에서 비석거리 구간의 교목류 수종갱신과

녹지대에 초화류 등을 식재해 정원형 가로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에 식재된 담팔수 수종이 최근 위황병 감염으로 인해 결손 구간이 발생하고 수형 불량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낙엽수 보환 식재된다. 또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수벽이 정비되며 가로수 하층에는 관목 및 향토수종인 갯가시나무와 각종 사초류 등 31종의 초화 1만 4000여본이 식재된다. 이태윤기자

제34회 회장배전도검도대회

일시 2019년 11월 24일(일) 09:00~(개회식 10시)

장소 제주고등학교 실내체육관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 참가자격: 대한검도회 회원
- 경기구분: 전문체육부·생활체육부 (단체전, 개인전)

2019. 11. 24.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회장 김병수

문의전화: 010-4691-8999, 010-5665-6811

식자재전문할인마트 **MARTRO**
마트로 탐동점(756-6900)

패밀리데이

매월 넷째주 '금요일부터 7일간의 초특가세일전'을 할드가족에게는 더큰혜택이!

7+1 하나에게 하나다

60% 할인

선착순 100개 수량 한정

1인5개 한정판매

뉴월드 회원가

※ 위 판매조건은 행사상품별 내용이 다릅니다.

행사기간 11월 22일(금) 부터 7일간

※ 당일 회원가입 하시는 경우에는 시스템관계상 회원확인이 안 될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회원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랜드보청기

가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감귤 신상품분양

2020년 봄 출하 목록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탐나는중 · 왕금향
미니향 · 아마니스
제리몬(레몬)

조생

유리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사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010-3055-1885